



# ‘방출 신화’ 최형우 ‘타점 신화’ 도전

나이를 잊은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최다타점 고지를 향해 달린다.

지난 4년 최형우는 꾸준하면서도 강렬한 활약으로 ‘모범 FA’로 꼽혔다. ‘타격왕’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최형우는 지난 12월 계약기간 3년, 총 47억원에 KIA와 다시 한번 FA 계약을 하며 고향팀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됐다.

최형우는 “계약을 해서 너무 좋고 제 가치를 인정 해주셨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김주찬이 두산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최형우에게는 ‘최고참’ 타이틀이 더해졌다. 올해로 39세, 자연히 나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최형우는 나이를 잊었다.

최형우는 “야구장에서는 선·후배가 없고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나이를 떠난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왜 나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나이 들었던 젊든, 못하면 밀리는 게 당연하고 요즘은 나이 많다고 사할 더 많이 내보내 주는 것도 없다. 굳이 나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나이를 지운 경쟁과 결과를 이야기했다.

그라운드에서 나이는 버렸지만, 후배들을 보는 ‘아빠 같은’ 마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진다.

최형우는 “분위기를 잡아주고 싶다.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질 때 안 좋은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이기는 게 제일 좋기는 하다(웃음)”며 “후배들이 잘하면 좋겠다. 아빠 같은 마음으로 바라다면 이들이 크게 성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험이 쌓일 만큼 쌓였다. 지금 시기에 한 번 터지지 않으면 몇 년을 간다. 빨리 타이거즈를 이끌 레벨로 올라가야 한다”며 “나는 이제

## ‘KIA 모범 FA’ 3년 재계약

올 나이 39세로 최고참 후배들과 전주 자체캠프 이어 챔플 스프링캠프서 구슬땀

## “성적 앞에 나이는 상관 없어

후배들 성장 바라는 아빠같은 마음 KBO 최다타점 깨는 게 목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고 후배들은 커야 하는 입장이다. 조금만 마음에 화도 내고 싶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팀에 와서 1년 지나고 나니까 후배들이 다가오고 서로 대화가 되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즌 준비는 순조롭다. 예전과 달리 국내에서 캠프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던 대로 준비했다.

최원준, 이우성, 김규성 등 후배들과 ‘전주 캠프’를 소화했던 최형우는 “재미있게 훈련했다. 며칠 온 것 빼고는 훈련량이든가 스케줄 대로 잘 진행됐다.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루틴대로 몸상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똑같은 몸상태로 캠프는 시작했지만, 마음은 조금 다르다. ‘함께’가 빠진 캠프가 어색하고 아쉬운 최고참이다.

최형우는 “국내 캠프에서 단점은 크게 없다. 하지만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고, 같이 차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지 못해서 안 좋다. 집밥 먹는 것은 좋지만 선수단 전체가 어울려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아쉽다”며 “날씨 조금 추운 것 빼고는 훈련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긴장감도 떨어지고 개인차를 타고 경기장에 오는 것부터가 다르다”고 웃었다.

최형우는 ‘방출 신화’를 쓴 리그의 대표타자다. 하지만 늦었던 출발 탓에 누적 기록 등에서 ‘최고’에는 한 발이 부족하다. 그만큼 특별한 목표 없이 달려왔던 그지만 최근 욕심나는 목표가 생겼다. ‘최다타점’이 최형우가 노리는 최고의 타이틀이다.

KBO 최다타점 기록은 이승엽의 1498타점. 지난 시즌까지 1335타점을 쌓은 최형우는 양준혁(1389타점), 김태균(1358타점)에 이어 최다타점 4위다.

최형우는 “최다타점은 깨보고 싶다. 2011, 2016년에 MVP 투표 나갔다가 떨어진 이후로 개인적으로 최고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2017년에 KIA와서 우승을 하고 나서는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도 없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달려오다 보니까 최다타점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목표를 삼고 다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하나 자신이 있는 동안 KIA를 강팀으로 만드는 게 최형우의 바람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복 받은 선수다. 팀 옮겨서도 우승도 했다.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상위권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며 그라운드 안팎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김원식 영입 수비 보강

대인방어·테클·커버 플레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광주FC가 인천유나이티드, FC서울 등에서 맹활약한 수비형 미드필더 김원식(29)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김원식은 185cm·75kg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대인방어와 테클, 커버 플레이가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다.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소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알마드리드 미드필더 카세미루를 연상시키는 플레이에 ‘식세미루’라는 애칭도 얻었다.

김원식은 서울 동북고 재학시절인 2007년 지동원(광양 제철고), 남태희(울산 현대고)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FC 유소년 클럽에서 뛰었다. 2009년에는 프랑스 리그1 발렌시엔FC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2012년 유럽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입단한 그는 경찰청을 거쳐 2015년 인천으로



입단돼 31경기를 소화했다.

김원식은 이후 서울로 복귀해 중원과 중앙 수비수를 오가며 2016 K리그1 우승에 역할을 했다. K리그1 통산 114경기 출전했으며, 1골을 기록하고 있다.

김원식은 “지난해 서울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나 있을 당시 감독 대행이었던 김호영 감독님께서 나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주셨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에서 감독님과 함께 할 축구가 기대된다. 훈련을 통해 경쟁에서 이겨내고, 희생과 헌신으로 광주의 비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장타 견제? ...골프 클럽 길이 제한 예고

미국 골프협·영국 R&A 제안...상한 48→46인치 의견 수렴

세계 골프 규칙을 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가 골프 클럽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두 단체는 3일(한국시간) 비거리 관련 장비 규칙 변경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퍼터를 제외한 클럽 길이 상한 48인치를 46인치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규칙 변경 계획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3월 초까지 이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 후 변경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클럽 길이 상한을 줄이는 것은 역시 최근 선수들의 비거리가 늘어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난해 US오픈 우승자 브라이슨 디셔보(미국)는 현재 상한 길이인 48인치

드라이버를 실전에 사용, 비거리를 늘려 코스를 공략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USGA가 이날 공개한 2020년 드라이버 샷 비거리 관련 보고서 보면 유러피언투어의 경우 지난해 평균 비거리 301.9야드로 2003년 286.3야드에 비해 15.6야드나 늘었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2003년 277.9야드에서 지난해 288.4야드로 10.5야드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클럽 길이가 늘어나면 제구가 어려워지는 대신 비거리라는 증가하게 된다.

USGA와 R&A는 골프공 테스트 방법 개선과 클럽 페이스의 반동 효과 상한 변경 등의 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초까지 6개월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예정이다. /연합뉴스

## ‘진짜 사나이’ 된 김기훈 “진짜 프로돼서 오겠다”

홍종표와 국군체육부대 합격

KIA 좌완 선발 유망주

2019년 입단 후 선발 3승

제구 약점에 지난해 팔꿈치 부상

“구속 올리고 구종 세밀함 더할 것”

KIA 타이거즈의 좌완 기대주 김기훈이 잠시 팀을 떠난다. 그는 3일 발표된 국군체육부대 최종 합격자 명단에 내야수 홍종표와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KIA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소식이다. 치열한 경쟁 속 합격 소식은 반갑지만, 양현종의 이탈로 빠진 좌완 선발 자리에 윌리엄스 감독이 지켜본 후보 중 한 명이기에 아쉬움도 있었다.

김기훈은 “형들이 일찍 다녀오는 게 좋다고 했다. 길게 봐서 결정했다. 보완해야 할 점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내 공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훈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새 시즌을 준비했다. 몸만들기에 주력했고, 동성고 시절 은사였던 김재현 코치의 피칭 아카데미를 찾아 좋았던 기억을 살리는 데도 신경 썼다.

김기훈은 “몸을 더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웨이트를 중점적으로 했다. 피칭 쪽에서 메커니즘도 보완했다”며 “시즌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체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동성고를 졸업하고 우선지명 선수로 2019년 KIA 유니폼을 입은 김기훈은 많은 팬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루키’였다.

선발 자원으로 시작해 3승도 올렸지만 제구 약점도 노출했다.

김기훈은 “확실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 게 아쉽다”며 “심리적인 부분도 있었다. 처음에는 구속이 나니까 막 던졌던 것 같다. 욕심이 컸는데 그러다 안 되니까 제구에 문제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장점을 잃어버렸고, 프로의 높은 벽도 느꼈다.

김기훈은 “공을 때려서 던져야 되는데 스트라이크를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니까 밀어 던졌다”며 “그렇게 던진다고 다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가지고 있던 팔 스피드도 줄고 밸런스가 무너졌다.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생각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팔꿈치 부상도 아쉬움이다.

김기훈은 “캠프에서 팔꿈치 부상이 있었다. 비시즌 때 계획하고 만들어왔던 게 부상으로 어긋났다. 1~2개월 재활하면서 생각보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 오지 않아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김기훈은 지난 2년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2년을 보낼 계획이다.

김기훈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몸으로 안 됐다. 보완해야 할 점을 많이 알았다”며 “1군에서 많은 기회를 받아서 중심타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고, 파울 개수가 많은 타자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선배들도 김기훈에게는 좋은 교과서였고 힘이 되었다.

김기훈은 “자신 있게 던지고 빠른 카운트에 승부하고, 빠른 템포로 던지는 게 내가 추구하는 패턴인데 그 모습이 안 나왔다”며 “(전)상현이 형, (박)준표 형, (양)현중 선배가 좋은 시즌을 보낼 때 공통점은 템포가 빠르다는 것이다. 사인을 보고 주저하는 시간이 없다.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수비하는 시간이 짧다. 좋은 결과를 보면 수비 시간이 짧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퇴근길 카풀을 자처했던 양현중과 룸메이트로 함께했던 홍상삼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선배들이었다.”

김기훈은 “현중 선배님이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아직 어리니까 막 부딪히라고 하고, 메커니즘적으로도 알려주셨다”며 “홍상삼 선배도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셨다. 아직 어리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충분히 기량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다. 많이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기훈은 상무에서 구속에 신경 쓸 생각이다. 변화구는 구종을 늘리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스트라이크, 유인구를 던질 수 있도록 세밀함을 더할 계획이다.

김기훈은 “프로에 와서 좋은 구장, 팬들 앞에서 야구하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무관중 경기 하면서) 팬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며 “지난 2년 간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기대해주신 만큼 부응을 못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 보완해야 할 점 보완하고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는 (팬들이) 애정으로 보는 선수가 아니라, 팀 주축으로서 많은 응원을 받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훈